

河圖洛書와 先後天八卦의 配合에 관한 考察

尹暢烈*

1. 序 言

河圖, 洛書와 八卦는 易學의 根源을 이루고 있다.

孔安國이 이르기를 “河圖는 伏犧氏가 天下에 王 노릇할 때 龍馬가 河水에서 나오거늘 드디어 그 무늬를 본받아 八卦를 그리고 洛書는 禹임금이 治水할 때 神龜가 무늬를 저 등에 배열되어 숫자가 9에 이르거늘 禹임금이 드디어 이에 의하여 차례대로 하여 九類를 이루었다.(孔氏曰 河圖者는 伏犧氏 王天下하실새 龍馬出河어늘 遂則其文하여 以畫 八卦하고 洛書者는 禹治水時에 神龜負文而列於背 하여 有數至九어늘 禹遂因而第之하여 以成九類하 니라).”¹⁾ 하였고 劉歆도 이르기를 “伏犧氏께서 하늘을 이어 왕노릇할 때 河圖를 받아서 그리시니 八卦가 이것이요 禹임금께서 洪水를 다스릴 때 洛書를 주시거늘 法받아 배열하니 九疇가 이것이다.(劉氏曰 伏犧氏 繼天而王하실새 受河圖而畫之하시니 八卦는也오 禹治洪水하실새 賜洛書어시늘 法而陳之하시니 九疇是也라)”²⁾라 하여 모두 八卦는 伏犧氏가 河圖의 原理를 본받아서 그렸다는 則河圖畫 八卦說을 주장하고 있다.

周易의 繫辭上傳에서는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陰陽)를 생하고 兩儀가 四象(太陽, 太陰, 少陽, 少陰)을 생하고 四象이 八卦를 생하니 八卦가 吉凶을 定하고 吉凶이 大業을 생한다.(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생八卦하니 八卦가 定吉凶하고 吉凶이 생大業하나니라)”³⁾라 하였으니 一生二法에 의해서도 八卦가 生成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繫辭下傳에서는 “옛날 伏犧씨께서 天下에 王 노릇할 때 우러러서는 하늘에서 象을 관찰하고 구부러서는 法을 땅에서 觀察하며 鳥獸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살피며 가까이서는 내 몸에서 取하고 멀리서는 萬物에서 取하여 비로소 八卦를 지어 神明의 德을 통하며 萬物의 情況을 分類하였다.(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에 仰則觀象於天하고 俯則觀法於地하며 觀鳥獸之文과 與地之宜하며 近取諸身하고 遠取諸物하여 於是에 始作八卦하여 以通神明之德하며 以類萬物之情하나니라)”⁴⁾고 하여 仰觀俯察하여 八卦를 그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圖書와 八卦의 중요성에 대해 胡煦는 周易函書 約存에서 “周易은 道를 傳한 책이다. 道理는 文字에 의해 밝혀지고 文字는 河圖, 洛書에서 비롯하니 그림에는 數가 모이고 象이 베풀어지고 理致가 붙어있다. 河圖와 洛書는 하늘이 그림으로서 보여 준 것이요 先天伏犧八卦는 聖人께서 그림으로써 가르친 것이다. 數가 없으면 行하지 않고 象이 없으면 定하여지지 않고 理致가 없으면 神靈스럽지 않으니 行하고 定하고 靈한 것은 말없는 周易이요 말을 둔 伏犧氏이다. 돌아보건대 文字는 浩繁하되 圖象은 簡略하고 文字는 쉽게 나타나되 圖象은 깊은 것을 숨기고 있으니 圖象은 하나에 많은 것을 간직하고 겨자씨에 수미산을 들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옥한 것을 窮理하고 심오한 것을 헤아리는 것은 실상 넓고도 어려우나 숨은 것을 버리고 드러난 것만 힘쓰며 쉬운 것만 일삼고 어려운 것을 버려 두는 것은 한없이 넓고 아득한 것(浩渺)을 큰 물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요 象의 根源이 마르지 않는 것을 찾지 않는 것이니 어찌 능히 周易의 大原을 꿰어 하나로 관통할 수 있으리오(周易은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32

2)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32

3) 上揭書, 周易卷四, pp.371~374

4) 上揭書, 周易卷四, p.413

傳道之書也라 道理는 顯于文字하고 文字는 肇于圖書하니 圖也者는 數之聚象之設而理之寓也라 河圖洛書는 天이 以圖示也오 先天八卦는 聖人이 以圖教也라 無數면 不行하고 無象이면 不定하고 無理면 不靈하나니 行之定之靈之는 是無辭之周易而有言之伏羲也라 顯文字浩繁而圖象簡略하고 文字顯易而圖象隱深하니 藏萬于一하고 納須彌于芥子라 窮幽測奧가 實費且難이나 舍其隱하고 務其顯하며 守其易하고 置其難은 是逐浩渺于洪流而未探泉源之不匱矣니 寧能徹周易之大原而一以貫之哉리오)⁵⁾라 하였다.

八卦는 陰陽之象이고 河圖, 洛書는 陰陽之數이다. 河圖十數는 陰陽生成之體가 되고 洛書九數는 陰陽變化之用이 된다. 象은 非偶면 不立하고 數는 非奇면 不行하므로 奇偶之分은 象數之始가 된다. 象과 數는 周易에서 “極其數하여 遂定天地之象”이라 하였고, 程子도 “有理而後에 有象하고 有象而後에 有數”라 하였으며,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數는 非氣不行하고 氣는 非數不立이라”⁶⁾하여 象과 數의 밀접한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직접 卦原於數한다는 說이 일찍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리하여 歷代의 많은 學者들이 則河圖書八卦說 또는 則圖書畫八卦說의 주장과 더불어 河圖, 洛書와 先後天八卦를 配合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행하여져 왔다. 先天八卦는 伏羲八卦로서 一太極을 중심으로 萬物이 창조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고, 後天八卦는 文王八卦로서 五皇極을 중심으로 萬物이 發展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圖書와 八卦의 結合은, 圖書의 數와 八卦의 象을 상호 配合시키는 작업으로 易學의 研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定說이 나오지 않고 있다. 著者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考察이 易의 本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研究報告하는 바이다.

2. 河圖와 先天八卦의 配合

5) 胡煦, 周易函書約存,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42권 易類, pp.48-12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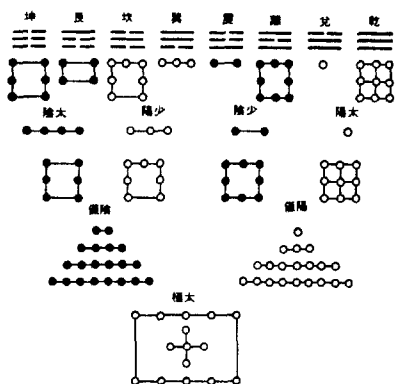
1) 朱子說

圖書와 先後天八卦의 配合은 朱子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朱子는 河圖洛書를 則하여 八卦가 나온 것에 대해 易本義圖에서 “河圖의 五와 十을 쓰지 않는 것은 太極이기 때문이오 奇數二十, 偶數二十은 兩儀이고 一二三四로 六七八九를 만든 것은 四象이고 四方의 合을 나누어 乾坤離坎을 삼고 四隅의 빈곳을 채워 兌震巽艮을 삼은 것은 八卦이다.(河圖之虛五與十者는 太極也오 奇數二十 偶數二十者는 兩儀也오 以一二三四로 爲六七八九者는 四象也오 析四方之合하여 以爲乾坤離坎하고 補四隅之空하여 以爲兌震巽艮者는 八卦也라)”⁷⁾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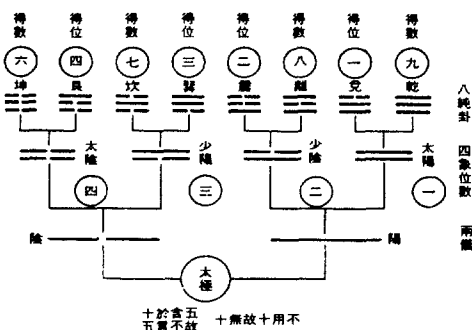
朱子는 숫자와 八卦의 구체적인 배합에 대해 四象之位와 四象之數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朱子가 이르기를 四象으로 살펴보면 太陽之位는 一에 居하고 숫자는 九니 乾은 그 숫자를 얻고 兌는 그 위치를 얻기 때문에 乾은 九가 되고 兌는 一이 되며 少陰之位는 二에 居하고 숫자는 八이니 離는 그 숫자를 얻고 震은 그 위치를 얻기 때문에 離는 八이 되고 震은 二가 되며 少陽之位는 三에 居하고 숫자는 七이 되니 坎은 그 숫자를 얻고 巽은 그 위치를 얻기 때문에 坎은 七이 되고 巽은 三이 되며 太陰之位는 四에 居하고 숫자는 六이니 坤은 그 숫자를 얻고 艮은 그 위치를 얻기 때문에 坤은 六이 되고 艮은 四가 되니 이제 六, 七, 八, 九의 配合을 조개서 乾坤離坎으로 삼아 四正方에 두고 一, 二, 三, 四의 차례에 의해 震, 兌, 巽, 艮을 삼아 四隅方의 빈곳을 보충한다. (朱子曰 以四象으로 觀之면 太陽之位 居一而數則九니 乾得其數而兌得其位故로 乾爲九而兌爲一이오 太陰之位 居二而數則八이니 離得其數而震得其位故로 離爲八而震爲二오 少陽之位 居三而數則七이니 坎得其數而巽得其位故로 坎爲七而巽爲三이오 太陰之位 居四而數則六이니 坤得其數而艮得其位故로 坤爲六而艮爲四이니 今析六七八九之合하여 以爲乾坤離坎而在四正之位하고 依一二三四之次하여 以爲震兌巽艮而補四隅之空也니라)”⁸⁾고 하였다.

7)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51

이를 圖表로 나누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는 退溪의 《啓蒙傳疑》를 참고하였다.



朱子象卦分數圖⁹⁾



八卦得數得位圖¹⁰⁾

朱子は 河圖에서 八卦를 그릴 때 五와 十은 不用하였는데 五는 生數之終이고 十은 成數之終으로 太極이 되어 中宮에서 作用하지 않으므로 除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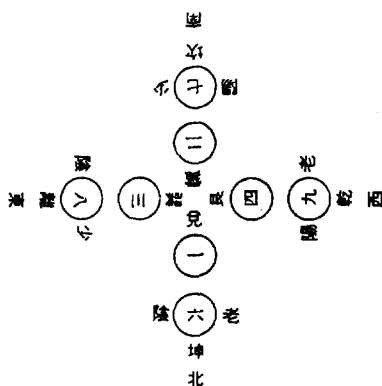
四象之位數가 太陽一 少陰二 少陽三 太陰四가 되는 것은 兩儀가 四象을 生한 順序에 따라 정한 것이며, 四象之得數가 太陽九 少陰八 少陽七 太陰

六은 陽進 陰退와 陽奇 陰偶의 원리에 의하여 정한 것이다. 따라서 太陽之數는 一과 九가 되고 少陰之數는 二와 八이 되고 少陽之數는 三과 七이 되고 太陰之數는 四와 六이 된다. 四象에서 八卦가 生할 때 太陽에서 乾兌가 生하고 少陰에서 離震이 生하고 少陽에서 巽坎이 生하고 太陰에서 艮坤이 生한다. 朱子は 先天八卦의 四正位에 있는 乾坤坎離에는 四象之得數를 配合하여 乾九 離八 坎七 坤六이라 하였고 四隅位에 속한 兌震巽艮에는 四象之位數를 配合하여 兌一 震二 巽三 艮四라고 하였다.

이상의 朱子說을 바탕으로 退溪는 數와 卦의 配合關係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¹⁾

- 太陽 { 乾得九 — 九自西而爲南方乾卦
兌得一 — 一自北而補東南隅爲兌卦
- 少陰 { 離得八 — 八在東仍爲東方離卦
震得二 — 二自南而補東北隅爲震卦
- 少陽 { 坎得七 — 七自南而爲西方坎卦
巽得三 — 三自東而補西南隅爲巽卦
- 太陰 { 坤得六 — 六在北爲北方坤卦
艮得四 — 四自西而補西北隅爲艮卦

이를 다시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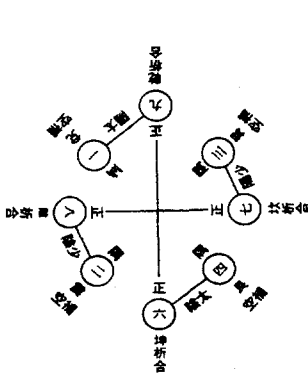
位數分卦圖

8)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p.51~52

9) 退溪學研究院, 退溪學報, 第四輯, 1974년 4월, p.132

10) 上揭書, p.81

11) 上揭書, p.109



析合補空圖12)

位數分卦圖는 河圖의 位數에 따라, 八卦를 配合한 것이고, 析合補空圖는 이를 八方位로 析合補空한 것이다. 析合補空이란 朱子의 析四方之合 補四隅之空의 줄인 말로 四方에 同處하고 있는 生成數의 合에서 이를 쪼개서 四象之得數로 四正位에 配置하고 四象之位數로 四隅의 빈곳을 채운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동하여 配置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四象之位를 爲主한 경우와 四象之數를 爲主한 경우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四象之位를 위주로 설명해 보면, 四象之位는 隅方に 자리하고 그 순서는 橫圖의 自然스러움에 근거하면 東南一 東北二 西南三 西北四가 된다. 이에 따라 東南太陽兌 東北少陰震 西南少陽巽 西北太陰艮이 자리하게 되고 正方に 同類의 四象을 配合하면 南方에 太陽乾九, 東方에 少陰離八, 西方에 少陽坎七, 北方에 太陰坤六이 配合된다. 四象之數를 위주로 설명해 보면, 四象之數는 正方に 자리하게 되고 이때 太陰六은 北에, 太陽九는 南에, 少陰八은 東에, 少陽七은 西에 자리한다. 이에 따라 乾은 南에, 坤은 北에, 離는 東에, 坎은 西에 자리잡게 되며, 同類의 四象之位를 隅方に 配合하면 자연스럽게 東南方に 太陽兌一, 東北方에 少陰震二, 西南方に 少陽震三, 西北方に 太陰艮四가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位數分卦圖와 비교해 보면 六 八은 바뀌지 않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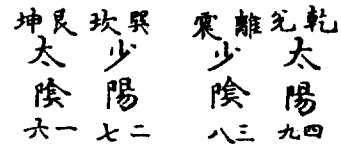
七 九가 바뀐 것은 金火는 交易하는 이치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 六이 四를 부르고, 八이 二를 부르고, 九가 一을 부르고, 七이 三을 부르는 것은 同類相從의 의미라 하겠다.

2) 玉齋胡氏說

玉齋胡氏(名 方平, 字 師魯)는 董夢程에게서 배우고 董夢程은 黃幹에게서 배우고 黃幹은 朱子의 사위가 되니 胡方平은 朱子의 學說을 篤守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易學啓蒙通釋은 朱子가 지은 易學啓蒙의 本旨를 發明한 것인데, 則河圖以作易에 대하여는 朱子와 그 說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이르기를 伏羲氏가 河圖를 則하여 易을 지을 때에 偶之數十을 合하면 55가 되니 가운데의 十과 五를 쓰지 않은 것은 太極을 형상한 것이기 때문이오, 그 밖에 홀어진 것이 모두 四十이다. 一 三 七 九로 陽儀를 삼은 것이 二十이오, 二 四 六 八로 陰儀를 삼은 것이 二十이니, 이것을 본받아 兩儀를 生한 것이다. 一 二 三 四의 位置로 六 七 八 九의 象을 만드니 이것을 본받아 四象을 生하며 四象이 八卦를 生한다고 한 것은 朱子의 說과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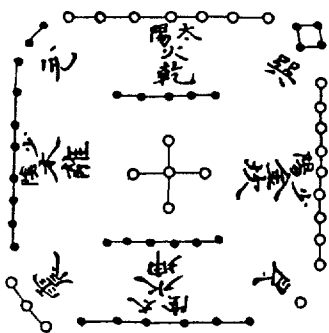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八卦의 숫자 배합에 있어서는, 太陽은 四와 九를 배합하여 乾兌에 活用하였고(乾이 九 兌가 四, 또는 兌가 九 乾이 四가 된다고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하였다. 以下 同), 少陰은 三八을 離震에 活用하였고, 少陽은 二七을 巽坎에 활용하였고, 太陰은 一六을 艮坤에 활용하였다.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³⁾



陰 太 陽
極

12) 上揭書, p.115

13)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14卷 易類, p.20-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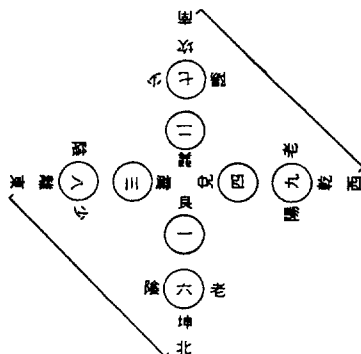


伏羲則河圖以作易圖

위의 圖表를 보면 四象之數는 一致하지만 四象之位는 反대로 太陰에서부터 一로 하여 少陽二, 少陰三을 거쳐 太陽의 四에서 그치고 있다. 胡氏는 또 朱子의 說을 계승하여 四象에서 八卦가 나오는 것에 대해 “二七의 合을 나누면 七은 南에 居하여 乾이 되고 二로 東南隅의 빈곳을 채워 兌로 삼고 三八의 合을 나누면 八은 東에 居하여 離가 되고 三으로 東北隅의 빈곳을 채워 震으로 삼고 四九의 合을 나누면 九는 西에 居하여 兌이 되고 四로 西南隅의 빈곳을 채워 巽으로 삼고 一六의 合을 나누면 六은 北에 居하여 坤이 되고 一로 西北隅의 빈곳을 채워 艮으로 삼는 것은 이것이 본받아 八卦를 이루는 것이다.(析二七之合 則七居南爲乾 而二補東南隅之空해야 以爲兌하고 析三八之合 則八居東爲離 而三補東北隅之空해야 以爲震하고 析四九之合 則九居西爲兌 而四補西南隅之空해야 以爲巽하고 析一六之合 則六居北爲坤 而一補西北隅之空해야 以爲艮者는 此則之以成八卦也라)”¹⁴⁾고 하였다. 위의 伏羲則河圖以作易圖에 南方의 二七에 少陽에서 나온 巽坎을 配屬하지 않고 太陽의 乾兌를 配合하고, 西方의 四九에 太陽에서 나온 乾兌를 配屬하지 않고 巽坎을 配屬한 것은 陽이 이미 通變된 모습에 따라서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즉 少陽의 二七이 前進하면 太陽의 四九가 되니 南方에 太陽의 乾兌를 두고, 太陽의 四九가 後退하면 少陽의 二七이 되므로 西方에 少陽의 坎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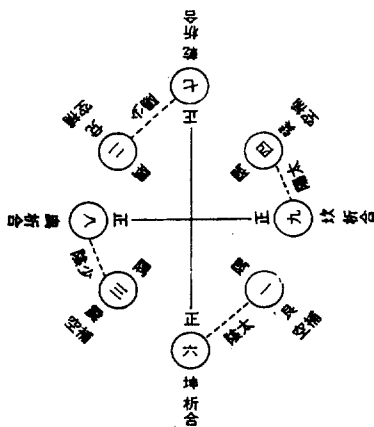
14) 上揭書, p.20-672

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通變되기 이전의 상태를 退溪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를 河圖當位不協卦之圖라 하였다.



河圖當位不協卦之圖15)

여기서 當位란 河圖 四方의 數가 적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不協卦란 숫자에 의해 배합된 八卦의 모습이 先天八卦와 合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東北方은 先天八卦와 一致하지만 西南方은 先天八卦와 一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退溪는 玉齋胡氏가 주장한 說에 근거하여 老少陽을 通變시킨 후 析合補空하여 다음의 析合補空圖를 그렸다.



析合補空圖16)

15) 退溪學報 第四輯, p.88

위의析合補空圖를 보면 北方의 一六位에 太陰의 坤艮을 배속하되 坤六을 北方에, 艮一을 西北方에 補空하였고, 東方의 三八位에 少陰의 離震을 배합하되 離八은 東方에, 震三은 東北方에 補空하였는데 정상적인 배합이다. 그러나 南方의 二七火 자리에 少陽인 巽坎이 배속되어 있지 않고 太陽인 乾兌를 배치하고, 西方의 四九金 자리에 乾兌를 배치하지 않고, 巽坎을 배합하였다.

이는 玉齋가 水를 太陰, 木을 少陰, 火를 太陽, 金을 少陽으로 보아, 火인 太陽의 자리에 太陽에서 생겨난 乾兌를 배합하고 金인 少陽의 자리에 少陽에서 생겨난 巽坎을 배합할 수 있는 이치도 들어 있지만 老少陽의 通變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玉齋胡氏는 첫머리의 易學啓蒙通釋圖에 이르기를 “橫圖는 卦畫이 이루어지는 그림이고 圓圖는 卦氣가 運行하는 것이니 卦에다 數를 배합할 때 離 震 艮 坤은 같되 乾兌巽坎이 다른 이유는 陰의 老少(太陰 少陰)는 靜을 主하여 그 常을 지키기 때문이고 陽의 老少는 動을 主하여 그 變을 통하기 때문이다.(橫圖者는 卦畫之成이오 圓圖者는 卦氣之運이니 以卦配數에 離震艮坤同 而乾兌巽坎異者는 以陰之老少는 主靜而守其當하고 陽之老少는 主動而通其變故也르새라)”¹⁶⁾고 하였고, 또 靜常動變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개 河圖 二象이 東北에 居하는 것은 陰의 老少이다. 陰은 靜을 主하여 그 常을 지키기 때문에 水와 木은 각각 그 常을 하나로 하여 다른 것이 兼하는 바를 두지 않는다. 一六은 北에 居하여 水가 되니 卦에 있어서 艮坤이 되니 離震이 될 수 없고, 三八은 東에 居하여 木이 되니 卦에 있어서 離震이 되니 艮坤이 될 수가 없다. 陰은 작은 것이 되니 窮冬에 居하여 서로 놓여 冬과 春의 卦로 삼는다. 河圖 二象이 西南에 居하는 것은 陽의 老少이다. 陽은 動을 主하여 그 變을 통하기 때문에 金과 火는 서로 그 象을 통하여 실상 양쪽에서 兼하는 바를 둘 수가 있다. 乾은 南方의 火位에 居하지만 說卦傳에서 乾은 金이 된다고 하였고 坎은 西方의 金位에 居하지만 說卦

傳에서 坎은 赤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四九는 西에 居하여 金이 되니 卦에 있어서 본래 乾兌가 되지만 또한 巽坎도 될 수가 있다. 二七은 南에 居하여 火가 되니 卦에 있어서 본래 巽坎이 되지만 또한 乾兌도 될 수가 있다. 陽은 큰 것이 되니 大夏에 居하여 서로 놓여 夏와 秋의 卦가 된다.(蓋 河圖二象之居於東北者는 陰之老少也니 陰主靜而守其常故로 水木이 各一其象하야 不能他有所兼이라 一六은 居北爲水니 其於卦也에 爲艮坤이니 不得爲 離震矣오 三八은 居東爲木이니 其於卦也에 爲離震이니 不得爲艮坤矣라 陰所以小也니 所以居窮冬하야 相錯而爲冬與春之卦也라 河圖二象之居於西南者는 陽之老少也니 陽主動而通其變故로 金火互通其象하야 實能兩有所兼이라 乾居南方火位로대 說卦에 曰乾爲金이오 坎居西方金位로대 而說卦에 曰坎爲赤이라하니 故로 四九는 居西爲金이니 其於卦也에 本爲乾兌로대 亦得爲巽坎이오 二七은 居南爲火하니 其於卦也에 本爲巽坎이로대 而亦得爲乾兌矣라 陽所以爲大也니 所以居大夏하야 相錯以爲夏與秋之卦也라)”¹⁸⁾고 하였다.

玉齋胡氏는 위의 當位不協卦의 원리에 근거하여 朱子가 河圖는 體가 되어 常이 되고 洛書는 用이 되어 變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지 河圖가 “專於常하야 有體而無用”하고 洛書가 “專於變하야 有用而無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河圖의 四象이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象이 四方에 배열되어 있는 것은 각 그 처할 바의 위치에 해당하니 이것은 體의 常이지만 象이 西南에 처한 것은 生하는 바의 卦와 합치되지 않으니 이것은 또한 用의 變이 된다. 伏羲氏는 그 變을 본받아 易을 지었으니 즉 橫圖卦畫의 이루어진 그림으로 圓圖卦氣의 運行을 연구해 보면 四象이 나뉘어 八卦가 됨에 陰의 老少는 不動하지만 陽의 老少는 자리를 바꾸니 이것은 變을 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으니 어찌 常이 된다는 것에 구애받을 것인가(自河圖四象之合者로 觀之면 象之列于四方者는 各當其所處之位하니 此其體之常이어나와 象之處于西南者는 不協

16) 上揭書, p.116

17) 胡方平, 上揭書, p.20-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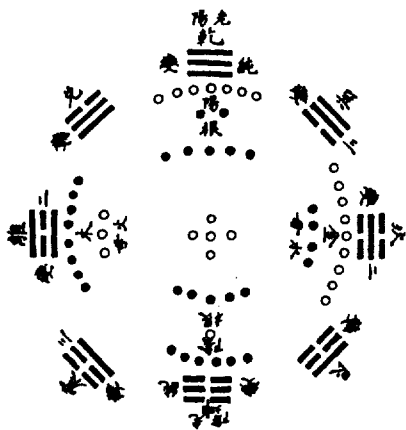
18) 上揭書, p.20-672

夫所生之卦하니 又爲用之變矣라 伏羲則其變者하야 以作易하니 則橫圖卦畫之成而究圓圖卦氣之運 則知四象이 分爲八卦에 陰之老少不動 而陽之老少迭遷하니 此는 主變也니 豈拘於常者乎아)”¹⁹⁾라 하였다.

이상의 內容중 玉齋胡氏가 太陰에 六一, 少陽에 七二, 少陰에 八三, 太陽에 九四를 배합한 것 중 太陰一 少陽二 少陰三 太陽四를 배합한 것은 朱子와 內容을 달리하지만, 太陽에 배합된 四가 太陰之位로써 太陽之數 九와 相合하고, 少陰에 배합된 三이 少陽之位로써 少陰之數 八과 相合하고, 少陽에 배합된 二가 少陰之位로써 少陽之數 七과 相合하고, 太陰에 배합된 一이 太陽之位로써 太陰之數 六과 相合하여 陰陽老少가 互藏其宅하는 변화가 있으므로 수궁할 수 있는 一面이 있다.

3) 楊道聲說

이 說은 淸의 陳夢雷가 撰한 周易淺述 속에 실려 있는데 楊道聲의 生平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先天八卦와 河圖의 配合, 後天八卦와 河圖의 配合, 先天八卦와 洛書의 配合, 後天八卦와 洛書의 配合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있는 內容은 그의 先天卦配河圖 및 그에 대한 해설이다.



先天卦配河圖圖

“理致는 하나일 뿐이니 하나가 둘이 되면 乾坤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면 乾이 離를 얻고 坤이 坎

을 얻으며 넷이 여덟이 되면 乾이 兌離震을 얻고 坤이 艮坎巽을 얻게 된다.乾坤은 하나에서 動하는 것이고 坎離는 乾坤을 이어서 代行하는 것이고 兌震巽艮은 坎離의 작용을 오묘하게 하는 것이다. 乾坤의 자리가 펼쳐짐에 離坎이 바로 잡히고 離坎의 자리가 바로잡힘에 八卦가 바로잡힌다.

坤은 北에 있되 一六을 配合한 것은 어째서인가. 一은 數의 시작이고 물건을 낳는 시작이고 六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니 重點은 一에 있다. 一은 陽이니 乾의 象이지 坤의 象이 아니다. 그러나 坤은 自生하지 못하고 乾에서 生하니 따라서 北에 居하고 있는 것이다.

乾은 南에 있되 二七을 配合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二는 一의 짝이고 또한 물건을 낳는 數인즉 重點은 二에 있게 된다. 二는 陰이니 坤의 象이지 乾의 象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自生하지 못하고 坤에서 生하니 따라서 南에 居하고 있는 것이다.

乾南坤北이 또한 天을 본받았으니 天陽은 南에 있고 陰은 北에 있는 것이다. 離는 東에 居하는데 三八을 配合한 것은 어째서인가. 天三은 生木하고 地八成之하니 火가 木에서 생겨난 것이요 坎은 西에 居하는데 四九를 配合한 것은 어째서인가. 地四는 生金하고 天九가 成之하니 金에서 생겨난 것이다. 四卦의 正位는 하나는 經이 되고 하나는 緯가 되어 그 자리에 居하지 않고 부터 生하는 바에 자리하므로 先天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震兌艮巽이 四維에 居한 것은 어째서인가. 乾坤坎離의 정한 위치로써 자리한 것이니 陽의 運行은 南에서 北으로 가고 陰의 運行은 北에서 南으로 간다. 南은 老陽이 되니 乾이 居하고 乾의 上爻가 變하여 兌가 되니 東南에 居하고 中爻가 變하여 離卦가 되니 東에 居하고 陽爻가 모두 變하여 震卦가 되니 東北에 居하고 北으로 끝까지 가면 乾爻가 다 變하게 된다.(即 坤卦가 된다.)

北은 老陰이 되니 坤이 居하고 坤의 上爻가 變하여 艮이 되니 西北에 居하고 中爻가 變하여 坎이 되니 西에 居하고 陽爻가 모두 變하여 巽이 되니 西南에 居하고 南으로 끝까지 가면 坤卦가 다 變하게 된다.(즉 乾卦가 된다.) 陰陽이 서로 摩擦하여 서로 終始가 되고 八卦가 자리를 바로 잡음

19) 上揭書, p.20-667

에 萬象이 森列하므로 乾坤離坎이 자리함에 八卦가 바로한다고 하는 것이다. (理는 一而已矣니 一而二則爲乾坤이오 二二四則乾得離而坤得坎이오 四而八則乾得兌離震하고 坤得艮坎巽이라 乾坤은 動乎一者也오 離坎은 繼乾坤而代之者也오 兌震艮巽은 妙坎離之用者也라 乾坤之位가 正而離坎이 正矣오 離坎之位가 正而八卦正矣라 坤之居北而配一六者는 何오 一은 爲數始而生物之始오 六은 所以成之也니 則所重在一이라 一은 陽也니 乾象而非坤象이나 然이나 坤은 不能自生而生于乾하니 是以로 居北이오 乾之居南而配二七者는 何오 二爲一之匹而亦生物之數則所重在二라 二는 陰也니 坤象而非乾象이나 然이나 亦不能自生而生于坤이 是라 是以로 居南이오 乾南坤北이 亦所以法天하니 天은 陽南而陰北也라 離居東而配三八者는 何오 天三生木하고 地八成之하니 火生于木也오 坎居西而配四九者는 何오 地四生金하고 天九成之하니 水生于金也라 四卦正位는 一經一緯하야 不居其位而位乎其所自生故로 曰先天也라 震兌艮巽之居四維者는 何오 以乾坤離坎之定位로 位之也니 陽之運은 自南而北하고 陰之運은 自北而南이라 南爲老陽이니 乾居之하고 乾之上爻變而爲兌니 居東南하고 中爻變而爲離니 居東하고 兩爻俱變而爲震하니 居東北이오 以極于北則乾爻盡變矣라 北爲老陰이니 坤居之하고 坤之上爻變而爲艮이니 居西北하고 中爻變而爲坎하니 居西하고 兩爻俱變而爲巽이니 居西南이오 以極于南則坤卦盡變矣라 陰陽相摩하야 迭爲終始하고 八卦正位에 萬象森列故로 曰乾坤離坎而八卦正矣라 하니라)"²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楊道聲은 이 글에서 보면 八卦와 河圖의 숫자配合에 중점을 두지 않고 四正卦가 자리한 이유와 乾坤을 중심으로 東方에 兌離震이 순서하고 西方에 艮坎巽이 자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坤이 北方一六 자리에 위치한 것은 坤이 乾(即一)에서 생하기 때문이요

乾이 南方二七 자리에 위치한 것은 乾이 坤(即二)에서 생하기 때문이며

離가 東方三八 자리에 위치한 것은 三木이 生離火하기 때문이요

坎이 西方四九 자리에 위치한 것은 四金이 生坎水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乾을 中心으로 上爻變이 一變으로 兌가 되어 東南方에 位하고 中爻變이 二變으로 離가 되어 東方이 位하고 上中二爻俱變이 三變으로 震이 되어 東北方에 位하며 坤을 中心으로 上爻變이 一變으로 艮이 되어 西北方에 位하고 中爻變이 二變으로 坎이 되어 西方에 位하고 上中二爻俱變이 三變으로 巽이 되어 西南에 位한다고 하였다.

正方に 居하는 卦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하나 數와의 배합이 결여된 것이 단점이다.

4) 崔碩基說

東洲 崔碩基(1904~1987, 慶北 永川人)는 河圖, 洛書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하였으며 그의 著書 河洛演義 속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陽爻, 陰爻의 기원에 대해 “一은 陽數의 始作이고 二는 陰數의 始作이므로 陽一爻, 陰一爻를 그리게 되었다(夫一者는 陽數之始오 二者는 陰數之始 故로 畫陽一爻, 陰一爻라)”²¹⁾고 하였고, 또 “天一, 天三, 天五의 세 天數는 合하면 九가 되고 九는 太陽의 數이다. 그러므로 九를 九倍하면 八十一이 되고 一은 陽을 생하기 때문에 一로써 象天하야 陽의 一爻를 그은 것이고 地二地四의 두 地數는 合하면 六이 되고 六은 太陰의 數이다. 그러므로 六에 六을 더하면 十二가 되고 二는 陰을 생하기 때문에 陰의 二爻를 그은 것이니 易에서 이른바 三天兩地而倚數라는 것이 이것이다.(天一天三天五 參天之數는 爲九 而九者는 太陽之數也라 故로 九乘九는 爲八十一而一以生陽故로 一以象天하야 畫陽一爻也오 地二地四 兩地之數는 爲六 而六者는 太陰之數也라 故로 六加六은 爲十二而二生陰故로 二以法地하야 畫陰二爻也니 易所謂參天兩地而倚數者 是也라)”²²⁾라 하였다.

그는 三畫卦의 起源에 대해 “陰과 陽은 獨行하

20) 陳夢雷, 周易淺述,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二四, 易類, pp.43-324~325.

21)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 p.7

22) 上揭書, p.62

지 못하기 때문에 一과 二가 合하여져서 乾 ≡ 을 그었고 三을 나누어 坤 ≡ 을 그렸으며 乾坤이 서로 交合하여 震坎艮의 三男과 巽離兌의 三女가 생겨나 八卦가 되었다.(陰與陽은 不可獨行故로 一與二 合三而畫乾 ≡ 也오 分三而畫坤 ≡ 也라 乾坤이 相交하여 生震坎艮三男과 巽離兌三女 而爲八卦라)"²³⁾ 고 하였으며 또 “一陽 二陰은 合하면 三이 되고 三은 三才의 數이다. 그러므로 陽爻는 奇가 되어 三에 一을 곱하면 三이 되므로 三奇를 그려 乾 ≡ 卦를 만들었고 陰爻는 偶가 되어 三에 二를 곱하면 六이 되기 때문에 三偶를 그려 坤 ≡ 卦를 만들었다. 대개 河圖의 北, 中, 南은 세로로 三행이요 東, 中, 西는 가로로 三행이 되는 것은 畫이 셋인 모습이다.(一陽二陰은 合爲三 而三者는 三才之數也 라 故로 陽爻는 爲奇而三一爲三故로 畫三奇하여 爲乾 ≡ 卦也오 陰爻는 爲偶 而三二爲六故로 畫三偶 하여 爲坤 ≡ 卦也라 蓋河圖之北中南은 縱爲三행이요 東中西는 橫爲三行者는 是畫三之象也라)"²⁴⁾ 하였다.

그는 河圖와 八卦의 配合에 대해 말하기를 “北一에 東三을 곱하면 三이 되고 南二에 西四를 더하면 六이 되는 것은 곧 乾 ≡ 과 坤 ≡ 이 서로 對하는 象이요, 三에 三을 곱하면 九가 되고, 六에 六을 곱하면 三十六이 되니. 이 九와 六이 十五가 되어서 十五가 中에 있는 것은, 곧 乾과 坤이 서로 사귀는 뜻이다. 乾은 天인데 陽은 陰에서 生하므로 乾이 一을 얻어서 男子를 成하고, 하늘은 上에 있어서 씩씩하게 行하므로 하나를 하나하면 하나가 되어서 (1×1=1) 三이 되니 이것은 參天의 뜻이다. 이 三으로 北一을 곱하면 三이 되니, 즉 三陽이 東에서 長하여 陰極(東八)의 안에서 움직이므로 震 ≡ 卦를 東三에 긋고, 이 三으로써 東三을 곱하면 九가 되니 즉 九陽이 西에서 極하여 陰長(西四)에 빠지므로 坎 ≡ 卦를 西九에 긋고, 이 三으로써 西九를 곱하면 二十七이 되니 즉 七陽이 南에서 盛하여 陰生(南二)에서 그치므로 艮 ≡ 卦를 南七에 긋고, 이 三으로써 南七을 곱하면 二十一

이 되니 즉 一陽이 陰盛(北六)에서 씩씩하게 行하므로 乾은 父가 되어 震·坎·艮의 三男을 낳았다. 坤은 母인데 陰은 陽에서 生하므로 坤이 이를 얻어서 女子를 成한다. 땅은 하늘을 이어서 순하게 行하므로 一에 一을 더하면 二가 되니 이것이 곧 兩地의 뜻이다. 이 二로써 南二를 곱하면 四가 되니 즉 四陰이 西에서 長하여 陽極(西九)에 들어가므로 巽 ≡ 卦를 東八에 긋고, 이 二로써 西四를 곱하면 八이 되니 즉 八陰이 東에 極하여 陽長(東三)에 걸리므로 離 ≡ 卦를 東八에 긋고, 이 二로써 東八을 곱하면 十六이 되니 즉 六陰이 北에서 盛하여 陽生(北一)을 즐겨워하므로 兌 ≡ 卦를 北六에 긋고, 이 二로써 北六을 곱하면 十二가 되니 즉 二陰이 陽이 盛하는 곳에서 順하게 行하므로 坤은 母가 되어서 巽·離·兌의 三女를 낳았다.(北一에 乘東三爲三하고 南二에 加西四爲六者는 是乾 ≡ 坤 ≡ 相對之象也라 三三은 爲九요 六六은 爲三十六則 九六이 爲十五而十五가 居中者는 是乾坤相交之義也라 乾은 天也而陽生於陰故로 乾得一而成男也니 天在上而健行故로 一一一이 爲三이니 是는 參天之義也라 以三乘北一이 爲三則三陽이 長於東而動於陰極故로 畫震 ≡ 卦也오 以三乘東三이 爲九則九陽이 極於西而陷於陰長故로 畫坎 ≡ 也오 以三乘西九가 爲二十七則七陽이 盛於南而止於陰生故로 畫艮 ≡ 卦也오 以三乘南七이 爲二十一則一陽이 健行於陰盛故로 乾爲父而生震坎艮三男이요 坤은 地也而 陰生於陽故로 坤得二而成女也니 地承天而順行故로 一加一이 爲二니 是는 兩地之義也라 以二乘南二가 爲四則四陰이 長於西而入於陽極故로 畫巽 ≡ 卦也오 以二乘西四가 爲八則八陰이 極於東而麗於陽長故로 畫離 ≡ 卦也오 以二乘東八이 爲十六則六陰이 盛於北而說於陽生故로 畫兌 ≡ 卦也오 以二乘北六이 爲十二而二陰이 順行於陽盛故로 坤爲母而生巽離兌三女也라)"²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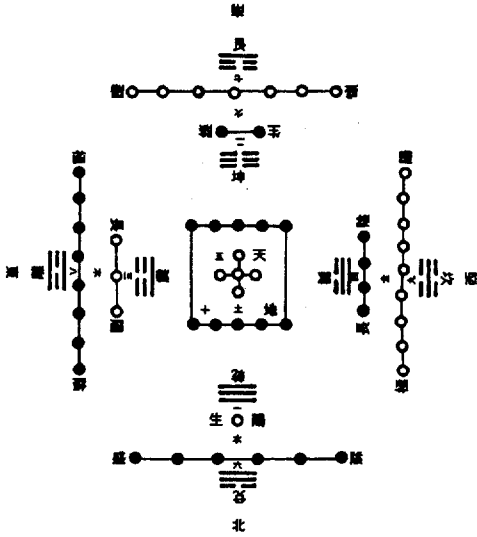
이를 통해서 河圖에서 畫卦한 숫자를 살펴보면 一은 乾이 되고 二는 坤이 되고 三은 震이 되고 四는 巽이 되고 六은 兌가 되고 七은 艮이 되고 八은 離가 되고 九는 坎이 되는데 이를 圖表로 나

23) 上揭書, p.7

24) 上揭書, p.62

25) 上揭書. pp.63~64

타내면 다음과 같다.



河圖畫卦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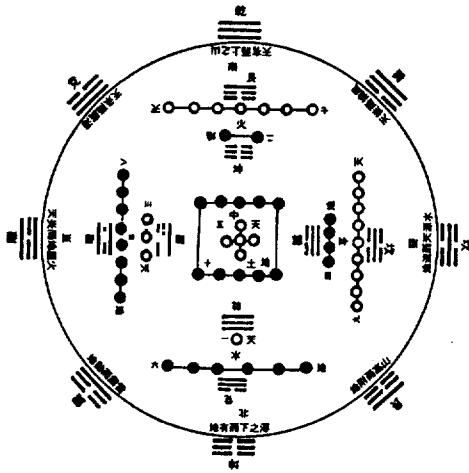
그는 이렇게 되는 理由에 대해 다시 설명하기를 “대개 하늘은 위에 있는데 陽은 陰에서 生하므로 乾이 北에 있고(하늘의 뿌리는 땅에 있음), 땅은 아래에 있는데 陰은 陽에서(땅의 뿌리는 하늘에 있음) 生하므로 坤은 南에 있고, 우뢰가 땅속에서 움직여서 떨치며 위로 올라가므로 震이 東에 있고, 바람은 하늘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므로 巽이 西에 있고, 澤은 땅보다 깊으면서 하늘을 즐거워하므로 兌가 乾의 下에 있고, 山은 하늘에 높으나 땅에 붙어 있으므로 艮이 坤의 上에 있고, 火가 타오르는 것이 우뢰와 같으나 아래에 걸려 있으므로 離가 震의 왼쪽에 있고, 水의 흘러가는 것이 바람과 같으나 그 근원은 上에 있으므로 坎은 巽의 오른쪽에 있다.”(蓋天在上而陽生於陰故로 乾在北하고 地在下而陰生於陽故로 坤在南하고 雷動地而震上故로 震在東하고 風起天而入下故로 巽在西하고 澤深於地而說天故로 兌在乾下하고 山高於天而附地故로 艮在坤上하고 火動如雷而麗於下故로 離在震左하고 水入如風而源於上故로 坎在巽右也라)26)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配列된 것을 河圖八卦라 하였고 이 河圖八卦가 變하여 先天八卦가 되는 原理에 대해 “陰陽의 位는 즉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며 水와 火는 그 중에서 사용된다. 山의 上에 하늘이 있고 澤의 下에 땅이 있으므로 乾은 南에 있고 坤은 北에 있으며, 火는 땅에 걸려서 하늘로 타오르고 水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서 땅으로 흘러가므로 離는 東에 있고 坎은 西에 있으며, 우뢰가 떨치되 땅속에서 움직이고 山이 높지만 땅에 붙어 있으므로 震과 艮이 坤의 左右에 있으며, 風이 이리저리 불면서 항상 하늘을 따르고 澤이 넓어서 하늘을 받들고 있으므로 巽과 兌가 乾의 左右에 있다. 이것은 곧 河圖八卦가 한번 變하여 先天八卦로 된 것이다. 대개 河圖八卦는 陰과 陽이 生하는 것이므로 乾兌와 坤艮과 離震과 坎巽이 四方에 나열되어서 陰陽이 서로 짝하는 것이요, 先天八卦는 陰과 陽이 각각 定하여지는 것이므로 乾坤坎離는 四正에 있고, 震艮巽兌는 四隅(구석)에 있으면서 陰으로써 陽을 보호하고 陽으로써 陰을 부리는 것이다. 南과 北은 陰과 陽의 極인데 極하면 變하므로 乾과 坤은 位가 바뀌어지고, 東西는 陰과 陽의 中이니 즉 正이므로 離와 坎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다.(其陰陽之位 則上天下地에 水火用中也오 山之上而有天하고 澤之下而有地故로 乾南坤北也오 火麗地而炎於天하고 水源天而流於地故로 離東坎西也오 雷震而動於地하고 山高而附於地故로 震艮은 在坤之左右也오 風散而從天하고 澤廣而承天故로 巽兌 | 在乾之左右也니 此는 則一變而爲先天八卦也라 蓋河圖八卦는 陰陽之生故로 乾兌坤艮離震坎巽은 列於四方 而陰陽相配也오 先天八卦는 陰陽之定故로 乾坤坎離는 在四正하고 震艮巽兌는 在四隅 而以陰輔陽하고 以陽制陰也라 南北은 陰陽之極 而極則變故로 乾坤은 易位也오 東西는 陰陽之中 而中則正故로 離坎은 不易也라)”27)하였다.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上揭書. p.67

27) 上揭書, pp.6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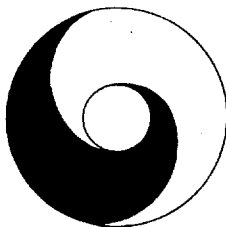
河圖八卦變爲先天八卦之圖

崔碩基의 說은 四象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八卦의 특징에 따라 河圖에서 八卦가 生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으로 역시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5) 則太極河圖畫卦說

太極河圖와 이 원리에 의해 주위에 八卦를 배치한 것은 최근에 그려진 그림이고 河圖의 숫자와 連繫시키지 않고 그림을 최초로 그린 사람은 來知德(1525-1604, 字 矣鮮, 號 瞿塘, 四川 梁平縣人)이다. 그가 지은 周易集註에는 다음의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圖 圖



流行者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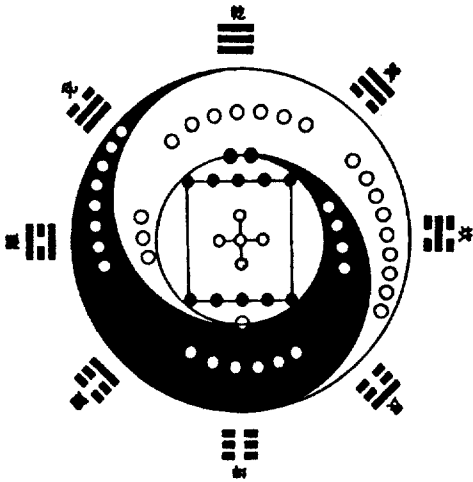
主宰者理

對待者數

“이것은 聖人께서 易을 지은 근원이다. 理氣象數와 陰陽老少와 往來進退와 常變吉凶이 모두 이 속에서 尙상되어 있다. 孔子께서 繫辭傳 첫머리 章에 易簡而天下之理得과 一陰一陽之謂道와 易有太極과 形上形下數篇과 幽贊于神明一章과 마지막으로 歸于義命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이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一部의 易經을 神而明之하는 것은 四聖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或者가 물기를 伏羲氏와 文王의 그림이 있거늘 다시 이 그림을 두는 것은 어찌서인가? 내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伏羲氏가 그림을 두었지만 文王의 그림이 伏羲氏와 같지 않으니 아마 伏羲氏의 그림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개 伏羲氏의 그림은 易之對待이고 文王의 그림은 易之流行이며, 나의 그림은 文字를 쓰지 않았지만 天地間理氣象數가 이와 같을 뿐이니 이것은 對待와 流行과 主宰의 理致를 兼해서 그린 것이다. 따라서 伏羲 文王보다 앞서서 그려진 것이다.(此는 聖人作易之原也라 理氣象數와 陰陽老少와 往來進退와 常變吉凶이 皆尙乎其中이라 孔子繫易首章에 至易簡而天下之理得과 及一陰一陽之謂道와 易有太極과 形上形下數篇과 以至幽贊于神明一章과 卒歸于義命히 皆不外此圖라 神而明之一部易經은 不在四聖而在我矣라 或曰伏羲文王有圖矣어늘 而復有此圖는 何耶오 德이 曰不然하다 伏羲有圖로대 文王之圖가 不同于伏羲하니 豈伏羲之圖差耶아 盖伏羲之圖는 易之對待오 文王之圖는 易之流行而德之道는 不立文字 以天地間理氣象數가 不過如此하니 此則兼對待流行主宰之理而圖之也라 故圖于伏羲文王之前이라)”²⁸⁾ 하였다. 이 말 속에는 圖를 증시하는 來氏의 생각과 큰 자부심과 자신감이 들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河圖와 結合하여 그린 그림이 太極河圖이다.

28) 來知德, 周易集註,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二六, 易類, pp.32-13~14



太極河圖

太極河圖는 河圖의 陰陽數의 배치에 따라 陽數의 發展은 白色으로, 陰數의 凝縮은 黑色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중심에는 5와 10으로 太極의 씨알이 자리하고 밖으로는 아래의 一陽이 三陽으로, 三陽이 七陽으로 올라갔다가 七陽이 九陽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발전하는 것은 白色으로 나타내었고 왼쪽의 八陰이 六陰으로, 六陰이 四陰으로 응축하여 다시 二陰으로 수렴되어 응축하는 것은 黑色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모습 속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循環하는 宇宙의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伏羲氏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天地氣運이 돌아가는 理致를 깨달아 八卦를 그렸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원은 太極의 중심으로 太極의 本原인 無極이 되는 부분이다. 이 無極의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太極運動이 일어난다. 즉 陽의 氣運은 밖으로 膨脹하며 發散하고 陰의 氣運은 안으로 凝縮하며 收斂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요약한 그림이 바로 太極河圖이고 이 運動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 太極運動에서 陰陽과 四象과 八卦가 分化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陰陽의 分化

太極河圖는 55개의 點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陽의 發散運動을 나타내는 點은 25개이며 陰의 凝縮運動을 나타내는 點은 30개이다. 陽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팽창하며 발산하므로, 數로 나타내면 1, 3, 5, 7, 9의 순서로 커나가고, 陰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凝縮하며 收斂하므로 數로 나타내면 10, 8, 6, 4, 2의 순서로 凝縮한다. 여기에서 5와 10은 太極의 씨알을 나타내므로 제외하면 각기 1, 3, 7, 9의 순서와 8, 6, 4, 2의 순서가 된다. 여기서 陽數는 發散運動을 하고 陰數는 凝縮運動을 한다. 가운데 씨알을 나타내는 5와 10은 陽이나 陰으로 未分化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發散이나 凝縮運動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의 55수에서 15를 빼면 40이 된다. 이 40을 2로 나누면 20이 되고 흰색으로 칠해진 陽儀의 모습이 20(1, 3, 7, 9)이고 검은색으로 칠해진 陰儀의 모습이 20(8, 6, 4, 2)이므로 이것은 太極에서 兩儀가 分化되는 것을 나타낸다.

② 四象의 分化

兩儀에서 四象이 나왔다고 할 때는 동쪽의 안은 흰색(양이 3) 걸은 검은색(陰이 8)으로 된 少陰(=)과, 남쪽의 안과 밖이 모두 흰색(사실은 陰이 2이고 陽은 7이나, 陰은 2에서 가장 잘 凝縮된 상태이므로 걸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으로만 된 太陽(=), 그리고 서쪽의 안은 검은색(陰이 4)이고 걸은 흰색(陽이 9)으로 이루어진 少陽(=)과 북쪽의 안과 밖이 모두 검은색(사실은 陽이 1이고 陰이 6이나 陽은 1일 때 가장 미약한 상태이므로 걸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으로만 이루어진 太陰(=)의 네가지 象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宇宙大自然은 少陽, 太陽, 少陰, 太陰의 四象이 고루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된다. 물론 남쪽에는 陽의 氣運이 많고 북쪽에는 陰의 氣運이 많으며 東과 西에는 陰과 陽이 반반이 되 동쪽에는 안은 陽의 氣運이 있지만 표현은 陰으로 하고 서쪽에는 안은 陰의 氣運이 있지만 표현은 陽의 氣運으로 한다는 말도 된다.

③ 八卦의 分化

그림에서 걸의 원을 8등분하였을 때 陰과 陽의 氣運은 各卦를 중심으로 평균치를 나타낸다. 즉

걸의 원을 동서남북과 그 사잇방인 東南, 西南, 西北, 東北의 8방으로 8등분했을 때 동쪽의 陰(안쪽)과 陽(바깥쪽)이 반반의 상태가 離卦(☲), 동남쪽 안쪽의 陽과 바깥쪽의 陰의 비율이 2:1인 것이 兌卦(☱), 남쪽의 거의 陽으로만 이루어진 상태가 乾卦(☰), 서남쪽의 안의 陰과 바깥의 陽의 비율이 1:2인 경우가 巽卦(☴), 서쪽의 음과 양의 비율이 같은 경우가 坎卦(☵), 西北쪽 안의 陰과 밖의 陽의 비율이 2:1인 경우가 艮卦(☶), 북쪽의 거의 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坤卦(☷), 東北쪽 안의 陽과 밖의 陰의 비율이 1:2인 경우가 震卦(☳)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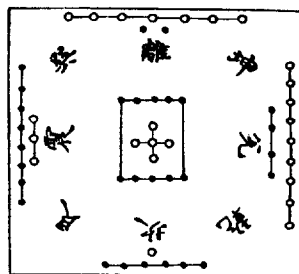
예를 들어 東南方인 경우에는 陰과 陽의 평균비율이 1:2로 陽은 안에 있고 陰은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을 그대로 卦象으로 표현한 것이 밑의 두 겹은 陽爻이고 위의 한 겹은 陰爻인 兌卦(☱)라는 뜻이다. 또 西北方인 경우에는 陰과 陽의 평균비율이 2:1로 陰은 안에 있고 陽은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을 그대로 卦象으로 표현한 것이 밑의 두 겹은 陰爻이고 위의 한 겹은 陽爻인 艮卦(☶)라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陰과 陽이 각각 반씩 있는 동쪽과 서쪽이다. 동쪽은 陽이 커나가는 方所以므로 陽이 陰을 가운데 품고 커나가는 象인 離卦를 두고 서쪽은 陰이 盛해 나가는 方所以므로 陽을 가운데 간직하고 陰이 盛해 가는 象인 坎卦를 두었다. 또 離卦는 비록 陽爻가 둘이고 陰爻가 하나이지만 陰爻가 中을 잡았고, 坎卦는 비록 陰爻가 둘이고 陽爻가 하나이지만 陽爻가 中을 잡았으므로 그 위치상의 가치는 거의 동등하다고 할 것이다. 河圖는 하늘의 運行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先天이라고 부르는 伏羲八卦가 그대로 형상화된다. 河圖의 太極運動을 따라 그대로 그리면 伏羲八卦가 그려지는 것이다. 다만 河圖는 方形으로 그리고 伏羲八卦는 圓形으로 그렸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게 보였을 뿐이다. 위의 그림처럼 河圖를 圓形으로 그리고 이어서 河圖의 숫자를 넓이로 환산하여 그리면 伏羲八卦의 순서대로 八卦가 그려지는 것이다.²⁹⁾

3. 河圖와 後天八卦의 配合

1) 玉齋胡氏說

朱子는 河圖와 後天八卦의 배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는데 이는 則河圖畫卦의 卦가 伏羲氏가 그린 先天八卦일 것이라고 여겨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後世의 學者들은 河出圖 洛出書어늘 聖人則之라는데 근거하여 河圖에서도 後天八卦가 나올 수 있으며 또 河圖, 洛書가 서로 經緯가 되고 先後天이 서로 表裏가 되는 오묘함이 있다 하여 河圖와 後天八卦를 서로 배합하고 있는데 玉齋胡氏는 이를 단순하게 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後天八卦合河圖數圖

그는 이르기를 “後天八卦는 坎一六水와 離二七火와 震巽三八木과 乾兌四九金과 坤艮五十土니 그 卦가 河圖의 位數와 정확히 合致된다.(後天八卦는 坎一六水와 離二七火와 震巽三八木과 乾兌四九金과 坤艮五十土니 其卦未嘗不與河圖之位數로 合이라)”³⁰⁾ 고 하였다. 이것은 八卦와 五行을 결합한 坎水, 離火, 震巽木, 乾兌金, 坤艮土에 河圖의 숫자에 따른 五行을 서로 결합했을 때 자연스럽게 河圖數와 後天八卦가 결합함을 설명한 것이다. 河圖는 五行相生의 순서로 배합되어 있고 後天八卦도 四時五行이 相生의 순서로 순환하는 원리로 이루어

29) 金秀吉 尹相喆共著, 周易入門, 서울, 大有學堂, 1997, pp.208~215

30) 上揭書, 易學啓蒙通釋. p.20-655

저 있으므로 兩者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대다수의 說이 이와 일치하므로 다른 사람의 說은 생략한다.

2) 崔碩基說

崔碩基는 後天八卦는 陰陽之用으로 八卦가 離南坎北, 震東兌西, 乾西北坤西南, 艮東北巽東南에 배치된 이유를 河圖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河圖로써 볼 것 같으면 陰은 陽中에서 生하므로 離가 南에 있고, 陽은 陰中에서 生하므로 坎이 北에 있고, 陰은 陽의 왼쪽에서 長하므로 兌가 西에 있고, 陽은 陰의 오른쪽에서 長하므로 震이 東에 있고, 陽이 西에서 極하여 北方의 旺盛한 陰中에 끝까지 行하므로 乾이 西北에 있고, 陽이 東에서 長하여 北方의 旺盛한 陰中에 그치므로 艮이 東北에 있고, 陰이 東에서 極하여 南方의 旺盛한 陽에게 順하게 따르므로 巽이 東南에 있으니 대개 陽은 健하고 陰은 順한 뜻이다.(以河圖로 觀之면 陰生於陽中故로 離在南하고 陽生於陰中故로 坎在北하고 陰長於陽左故로 兌在西하고 陽長於陰右故로 震在東하고 陽極於西而健行於北方之盛陰故로 乾在西北하고 陰長於西而順承於南方之盛陽故로 坤在西南하고 陽長於東而能止於北方之盛陰故로 艮在東北하고 陰極於冬而能順於南方之盛陽故로 巽在東南하니 蓋陽健陰順之義也라)³¹⁾

이것은 河圖와 後天八卦의 結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치는 가지고 있으나 숫자와 八卦를 결합하지 않고 陰陽의 相互關係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한성이 있다.

4. 洛書와 先天八卦의 配合

옛 사람들은 河圖洛書가 서로 經緯가 되고 八卦九章이 서로 表裏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潛室陳氏는 “經緯라는 말은 上下를 經이라고 하고 左右를 緯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經이라는 것은 그 正을 말하는 것이고 緯는 그 變을 말하는

것으로 河圖와 洛書가 서로 正과 變이 되니 河圖를 爲主로 말하면 河圖가 正이 되고 洛書가 變이 되며 洛書를 爲主로 말하면 洛書가 正이 되고 河圖가 또 變이 되니 要約하면 天地間은 一陰一陽으로 그 五行을 들로 하면 太極이 항상 그 가운데 居하는 것에 불과하니 二圖가 비록 縱橫으로 변동하지만 단지 서로서로 자신을 드러내니 이것이 서로 經緯가 된다고 이르는 것이다. 表裏의 說도 또한 그러하니 대개 河圖는 卦를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洪範九疇의 원리도 밝힐 수 있으며 洛書는 九疇의 원리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卦도 그릴 수가 있되 다만 당시에 聖人께서 각기 一事로 인해 後世에 드리우셨으니 伏羲는 河圖에 의거해서 卦를 그렸고 大禹는 단지 洛書에 근거해서 洪範九疇를 밝혔으니 요점은 伏羲가 卦를 그린 것은 그 表는 八卦지만 그 裏는 진실로 九疇가 될 수 있고 大禹가 九疇를 서술한 것은 그 表는 九疇가 되지만 그 裏는 진실로 卦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서로 表裏가 된다고 이르는 것이다.(潛室陳氏曰 經緯之說은 非是以上下爲經 左右爲緯라 大抵經言其正이오 緯言其變而二圖가 互爲正變하니 主河圖而言則 河圖爲正 洛書爲變이오 主洛書而言則 洛書爲正 而河圖 又爲變이니 要之컨대 天地間에 不過一陰一陽으로 以兩其五行而太極이 常居其中하니 二圖雖縱橫變動이나 要之是參互呈見이니 此所以爲之相爲經緯也오 表裏之說이 亦然하니 蓋河圖는 不但可以畫卦라 亦可以明疇오 洛書는 不特可以明疇라 亦可以畫卦로대 但當時에 聖人이 各因一事하야 以垂後世하시니 伏羲는 但據河圖而畫卦하시고 大禹는 但據洛書而明疇하시니 要之컨대 伏羲之畫卦는 其表爲八卦而其裏固可以爲疇오 大禹之叙疇는 其表爲九疇而其裏固可以爲卦니 此所以爲之相爲表裏也니라)³²⁾라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洛書와 先天八卦도 배합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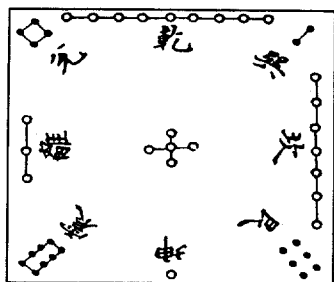
1) 玉齋胡氏說

玉齋胡氏는 易學啓蒙通釋에서 이르기를 “先天八卦에서 乾兌는 老陽의 四九에서 生하고 離震은 少

31) 崔碩基, 河洛演義, 上揭書,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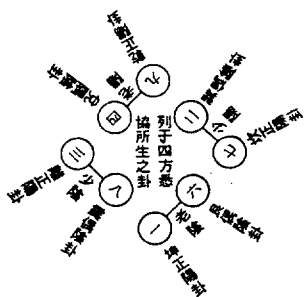
32)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p.32~33

陰의三八에서 生하고 巽坎은 少陽의 二七에서 生하고 艮坤은 老陰의 一六에서 生하니 그 卦가 洛書의 位數와 더불어 정확하게 合한다.(先天八卦에 乾兌는 生於老陽之四九하고 離震은 生於少陰之三八하고 巽坎은 生於少陽之二七하고 艮坤은 生於老陰之一六하니 其卦未嘗不與洛書之位數로 合이라)”33)고 하였다.



先天八卦合洛書數圖

위의 그림을 보면 玉齋胡氏는 河圖에서 八卦를 配合할 때는 坤六, 艮一, 離八, 震三으로 配合을 하였지만 洛書는 坤一, 艮六, 離三, 震八로 配合하여 少陰, 太陰의 숫자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一面을 살펴볼 수 있다. 啓蒙傳疑에는 이것을 洛書不當位協卦之圖라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洛書不當位協卦之圖³⁴⁾

여기서 不當位란 河圖와 달리 二七과 四九가 交易되어 있다는 것이고, 協卦란 말은 배합되어 있는 卦가 先天八卦의 方位와 일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玉齋胡氏는 이러한 原理에 根據하여 일반적으로 洛書가 用과 變이 되지만 또한 體와 常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洛書의 四象이 나뉘어진 것으로부터 관찰해 보면 象이 西南에 있는 것은 처할 바의 정당한 위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用之變이 되지만 象이 四方에 배열된 것은 모두 生하는 바의 卦와 合致되니 또한 이것이 體之常이 된다. 大禹는 그 常을 본받아 洪範을 지으시니 武王의 뜻있는 人倫이 펼쳐지는 바의 질문으로 인하여 하늘이 禹임금에게 九疇를 주었다는 대답을 窮究해 보면 四象이 나뉘어 九疇가 됨에 陽은 四正에 居하여 四陽의 卦를 배합하여 陰의 主宰가 되고 陰은 四隅에 居하여 四陰의 卦를 配合하여 陽의 輔弼이 되니 이것은 常을 主하는 것이니 어찌 變에 흔들리겠는가 (自洛書四象之分者로 觀之면 象之居于西南者是 不當其所處之位하니 此其用之變이 어니와 象之列于四方者是 悉協夫所生之卦하니 又爲體之常矣라 大禹則其常者하야 以作洪範이 어시늘 因武王彝倫攸叙之問하야 以究天錫禹疇之對則知四象이 分爲九疇오 陽居四正則配四陽之卦하야 以爲陰之宰하고 陰居四隅則配四陰之卦하야 以爲陽之輔하니 此는 主常也니 豈撓於變者乎아)”³⁵⁾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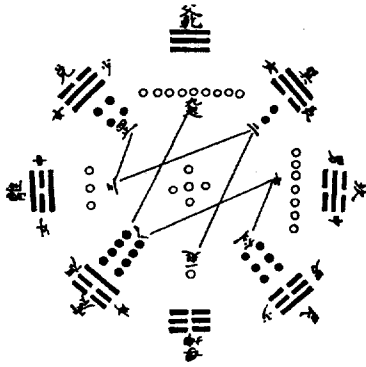
2) 楊道聲說

楊道聲은 先天卦配洛書圖와 그 說을 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3)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p.14

34) 退溪學研究院, 退溪學報 第四輯, 1974년 4월, p.88

35)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pp.41~42



先天卦配洛書圖

“洛書의 數에서 奇數는 正方に 있고 偶數는 모퉁이에 있는 것은 陽을 높이는 것이다. 八卦를 配合할 때도 각각 그 類를 좇으니 乾은 純陽이 되고 九를 配合하니 九는 陽이 極度로 발전한 數이다. 河圖의 位에서 二七이 되니 二에 七을 合하면 九가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乾을 用九라고 부른다. 坤은 乾의 짝이 되어 純陰이 되고 그 짝은 一이 되니 陽은 남고 陰은 부족하며 또한 河圖의 天一의 본래 자리이다. 九一로 數의 終始를 삼고 乾坤으로 卦의 陰陽을 定한다면 六子는 모두 계산할 수가 있다.

乾이 첫 번째로 坤과 사귀면 震을 얻기 때문에 乾다음은 震이며 九 다음이 八이 되고

두 번째로 坤과 사귀면 坎을 얻기 때문에 震다음은 坎이며 八 다음이 七이 되고

세 번째로 坤과 사귀면 艮을 얻기 때문에 坎다음은 艮이며 七 다음이 六이 되어 三男의 자리가 정해진다.

坤이 첫 번째로 乾과 사귀면 巽을 얻기 때문에 坤 다음이 巽이며 一 다음이 二가 되고

두 번째로 乾과 사귀면 離를 얻기 때문에 巽 다음은 離이며 二 다음이 三이 되고

세 번째로 乾과 사귀면 兌를 얻기 때문에 離 다음이 兌며 三 다음이 四가 되어 三女의 자리가 또한 정해진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論한다면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이 되지만 그 數를 論하면 乾九, 震八, 坎七, 艮六, 坤一, 巽

二, 離三, 兌四가 되니 卦가 생겨난 것으로 그 數를 얻고 數의 위치로 그 卦를 순서한다고 이를 것이다.(洛書之數에 奇者居正하고 偶者居隅는 尊陽也라 卦以配之에 各從其類하니 乾爲純陽而配九하니 九는 陽之極也라 于河圖之位에 爲二七하니 二合七이 非九乎아 故로 乾稱用九라 坤匹乾하야 爲純陰이오 厥配는 爲一하니 陽饒而陰乏也며 亦河圖天一之本位也라 以九一로 截數之終始하고 以乾坤으로 定卦之陰陽則 六子均可計焉이라 乾이 一交于坤하면 得震故로 次乾曰震이며 次九曰八이오 再交于坤하면 得坎故로 次震曰坎이며 次八曰七이오 三交于坤하면 得艮故로 次坎曰艮이며 次七曰六而三男之位定矣라 坤이 一交于乾하면 得巽故로 次坤曰巽이며 次一曰二오 再交于乾하면 得離故로 次巽曰離며 次二曰三이오 三交于乾하면 得兌故로 次離曰兌며 次三曰四而三女之位亦定矣라 是以로 論其位則 乾一兌二離三震四巽五坎六艮七坤八이 어니와 論其數則 乾九震八坎七艮六坤一巽二離三兌四니 以卦之生으로 得其數하고 以數之位로 序其卦云爾라)"³⁶⁾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卦	內容	關係	配合數
乾		父	九
震	乾一交于坤	長男	八
坎	乾再交于坤	中男	七
艮	乾三交于坤	少男	六
卦	內容	關係	配合數
坤		母	一
巽	坤一交于乾	長女	二
離	坤再交于乾	中女	三
兌	坤三交于乾	少女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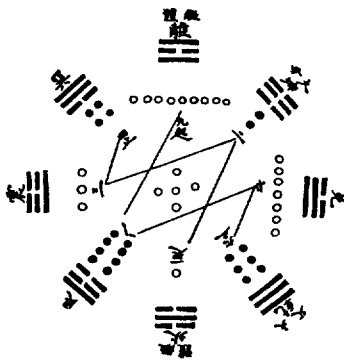
이것은 洛書의 中宮을 빼고 八方位에 先天八卦를 配合했을 때 각기 乾九 兌四 離三 震八 巽二 坎七 艮六 坤一이 配合이 되는데 八卦와 숫자와의 배합관계를 乾坤이 三男三女를 生하는 원리로 설명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5. 洛書와 後天八卦의 配合

36) 陳夢雷, 周易淺述,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24, pp.43-326~327

洛書는 五皇極을 중심으로 萬物이 相克에 의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後天八卦도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洛書와 後天八卦의 배합은 이치적으로 가장 잘 일치한다. 실상 河圖와 伏羲八卦의 配合, 河圖와 文王八卦의 配合, 洛書와 伏羲八卦의 配合는 비록 經緯表裏의 說에 의해 상통하는 점이 있었지만 洛書와 文王八卦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다. 비록 그리하지만 八卦와 상응하는 洛書의 숫자 배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楊道聲은 역시 後天卦配洛書圖와 說을 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圖書洛配卦天後



後天卦配洛書圖

“先天은 乾坤이 父母가 되어 六子의 작용을 생하고 後天은 坎離가 몸을 계승하여 함께 四子를 생하고 이후에 大父母의 作用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卦位가 다른 이유이다. 乾坤之體는 體가 純陰純陽이니 서로 교합함에 生生之用이 아주 넓지만 坎離之體는 雜陽雜陰이니 반드시 서로 달리함에 生生之用이 드러나니 이것이 더욱 卦位가 다른 이유이다.

대저 離는 陽儀에서 생한 것이고 乾을 繼承했기 때문에 南에 居하여 九에 해당하고 坎은 陰儀에서 생한 것이고 坤을 繼承했기 때문에 北에 居하여 一에 해당하니 坎離는 곧 父母가 된다. 坎의 初爻

로 離卦를 바꾸면 中女가 生男하므로 離의 다음이 艮이며 九의 다음이 八이오 다시 離의 初爻로 坎卦를 바꾸면 中男이 生女하므로 艮의 다음이 兌며 八의 다음이 七이 된다. 다시 坎의 中女로 離卦를 바꾸면 中女의 作用이 다시 大父에게 돌아가므로 兌의 다음이 乾이며 七의 다음이 六이 되어 乾兌 艮의 위치가 정해진다.

다시 離卦의 中爻로 坎卦를 바꾸면 中男의 作用이 大母에게 돌아가므로 坎의 다음이 坤이며 一의 다음이 二가 되고 坎卦의 上爻로 離卦를 바꾸면 中女가 또 生男하므로 坤의 다음이 震이며 二의 다음이 三이 되고 다시 離卦의 上爻로 坎卦를 바꾸면 中男이 다시 生女하므로 震의 다음이 巽이며 三의 다음이 四가 되어 坤震巽의 자리가 정해진다. 先天은 乾坤을 바로잡음에 八卦가 바로 잡히고 後天은 離坎을 바로잡음에 八卦 또한 바로 잡힌다. 八卦가 離坎에서 바로 잡힘에 乾坤이 옷깃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함이 없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함에 이르면 또한 乾坤이 그 작용을 오묘하게 하고 離坎이 그 능력을 신비롭게 발휘할 것이다. 後天을 배우고자 하는 자 또한 離坎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先天은 乾坤이 爲父母하여 以生六子之用하고 後天은 坎離爲繼體하여 共生四子하고 以還에 歸乎大父母用하니 此卦位之所以異也라 乾坤之體는 體純陰純陽하니 相交而生生之用이 已弘이어나와 離坎之體는 雜陽雜陰이니 必互異而生生之用이 乃顯하니 此尤卦位之所以異也라 夫離는 陽儀所生이오 繼乾故로 居南而當九하고 坎은 陰儀所生이오 繼坤故로 居北而當一이니 離坎은 卽父母也라 坎之初爻로 易乎離則中女生男故로 離之次艮이며 九之次八이오 卽以離之初爻로 易乎坎則中男生女 故로 艮之次兌며 八之次七이라 及坎之中爻로 易乎離 則中女之用이 還歸乎大父 故로 兌之次乾이며 七之次六 而乾兌艮之位定矣라 卽以離之中爻로 易乎坎 則中男之用이 還歸乎大母 故坎之次坤이며 一之次二오 坎之上爻로 易乎離 則中女又生男 故坤之次震이며 二之次三이오 卽以離之上爻로 易乎坎 則中男이 更生女故로 震之次巽이며 三之次四 而坤震巽之位定矣라 先天은 正乾坤 而八卦正하고 後天은 正離坎而八卦亦正이라 至八卦正乎

離坎 而乾坤垂拱無爲하야 以董厥成 則又乾坤之妙 其用 而離坎之神其能也라 學後天者는 亦正其離坎 而已라)"³⁷⁾

이상의 내용 중 卦와 數를 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離	繼乾	九
艮	離之初爻가 坎之初爻로 바뀜	八
兌	坎之初爻가 離之初爻로 바뀜	七
乾	離之中爻가 坎之中爻로 바뀜	六
坎	繼坤	一
坤	坎之中爻가 離之中爻로 바뀜	二
震	離之上爻가 坎之上爻로 바뀜	三
巽	坎之上爻가 離之上爻로 바뀜	四

이 내용은 우리가 洛書와 後天八卦를 결합할 때 二坤, 七兌, 六乾, 九離, 一坎, 四巽, 三震, 艮八의 내용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文王八卦와 洛書數의 배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西南方に 坤二를 配合한 것은 西南은 전반기 木火의 분열과정을 종결짓고 후반기의 金水の 통일과정으로 들어가는 전환기이다. 이때 五行에서는 土가 작용하여 火生土, 土生金으로 萬物을 理化한다. 十二地支에서 바로 未土가 작용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西南方に 坤土가 자리한 것이고 二는 陰火로써 이때에 아직 餘火가 왕성하지만 陰火로써 통일을 도와주고 있는 象이다.

西方에 兌金과 七火가 配合된 것은 金火交易을 나타내는 상이다. 西方에서 金과 火가 동시에 작용하는 모습이며 동시에 兌金에 의해 火가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西北方に 乾金과 六水가 配合된 것은 乾金이 金生水하여 六水를 生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乾은 卦序에서 一이 되니 역시 萬物을 統一하는 상을 담고 있다.

北方에 坎水와 一木이 配合된 것은 萬物이 一水로 統一된 이후에 다시 動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다.

東北方에 艮土와 八木이 配合된 것은 東北方은 水가 木으로 轉換하여 生命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다. 十二地支에서는 丑土가 作用하는 곳이다. 그래서 丑土의 모습을 나타내는 艮土가 자리하고 生命이 시작되는 八木이 자리한 것이다.

東方에 震木과 三木이 配合된 이유는 東方에서 木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東南方に 巽木과 四金이 配合된 이유는 木이 金에 뿌리를 박고 있는 象으로 木은 金을 써야만 나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때부터 金火交易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南方에 離火와 九金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離火의 分列을 九金이 견제하여 統一의 길로 나아가려는 뜻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金火交易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洛書와 文王八卦의 配合 다른 3개의 배합과 달리 그 내용이 무리 없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6. 結 論

八卦의 起原에 대해서는 則河圖(圖書)畫八卦說, 一生二法, 仰觀俯察法 등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중 則圖書畫卦說에 의해 河圖 洛書의 숫자와 八卦의 象을 結合시키는 많은 研究가 進行되어 왔다. 著者는 이를 河圖와 先天八卦, 河圖와 後天八卦, 洛書와 先天八卦, 洛書와 後天八卦의 配合으로 나누어 그 원리를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河圖와 先天八卦의 상관관계는 則河圖書八卦說의 核心을 이루므로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지만 河圖를 본받아 八卦를 그렸다는 수궁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河圖와 先天八卦가 相通하는 점이 있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① 朱子는 四象의 원리에 의해 乾九 兌一 離八 震二 巽三 坎七 艮四 坤六의 원리로 河圖에 先天八卦를 配合한 이후 太少陰之數는 正方に, 太少陽之數는 交易하여 正方に 배치한 이후 同類相從의

37) 陳夢雷, 周易淺述,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二四, pp.43-327~328

이치로 四象之位數를 구하여 四隅方에 배치하여 河圖에 先天八卦를 配合하였다.

② 玉齋胡氏는 太陰에서 生한 艮坤에 六一, 少陽에서 生한 巽坎에 七二, 少陰에서 生한 離震에 八三, 太陽에서 生한 乾兌에 九四를 配合하고, 太陽과 少陰은 陽으로 變通되므로 位를 바꾸고 乾坤坎離를 四正方에 兌震巽艮을 四隅方에 配合하였다.

③ 楊道聲은 八卦와 數의 配合이 缺如되어 부족 한 점이 많고, 崔碩基는 陽爻 陰爻의 生成과 三畫卦의 출현 등을 河圖의 原理로 설명한 특징이 있으며 朱子 등과 달리 四象의 숫자에 구애됨이 없이 八卦의 특징에 따라 河圖에서 八卦가 生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太極河圖는 河圖에 의해 그려진 太極圖形으로 來知德의 圓圖를 發展시킨 것으로 先天八卦가 그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導出되는 原理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2. 河圖는 五行相生의 順序로 수가 배열되어 있고, 後天八卦도 四時五行이 相生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兩者는 자연스럽게 結合된다.

3. 洛書와 先天八卦의 配合에 대해 玉齋胡氏의 이론에 의해 洛書에 八卦를 配合하면 자연스럽게 配合되어 協卦를 이루며, 楊道聲의 乾九 震八 坎七 艮六 坤一 巽二 離三 兌四의 說도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4. 洛書와 後天八卦의 配合은 洛書가 五皇極을 중심으로 萬物이 相剋에 의해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後天八卦 역시 成長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앞의 세 가지 配合의 경우와는 달리 그 內容이 자연스럽게 이치적으로 配合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한마디를 추가한다면 圖書와 八卦의 配合에 대한 研究는 象數에 대한 研究이고, 象數에 대한 研究는 易의 本原에 대한 研究로서, 비록 諸說이 多岐하다 할지라도 모두 참고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1. 金秀吉 尹相喆共著, 周易入門, 서울, 大有學堂, 1997

2. 來知德, 周易集註,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二六易類

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4. 陳夢雷, 周易淺述,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二四易類

5.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

6. 退溪學研究院, 退溪學報 第四輯, 1974.

7. 學民文化社, 周易卷一

8.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14卷 易類

9. 胡煦, 周易函書約存,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42卷 易類

參 考 文 獻